

삶을 잇는 작은 실

이정은 지음





이정은 작가

나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소중하게 그리고 좀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이정은 <실 1>

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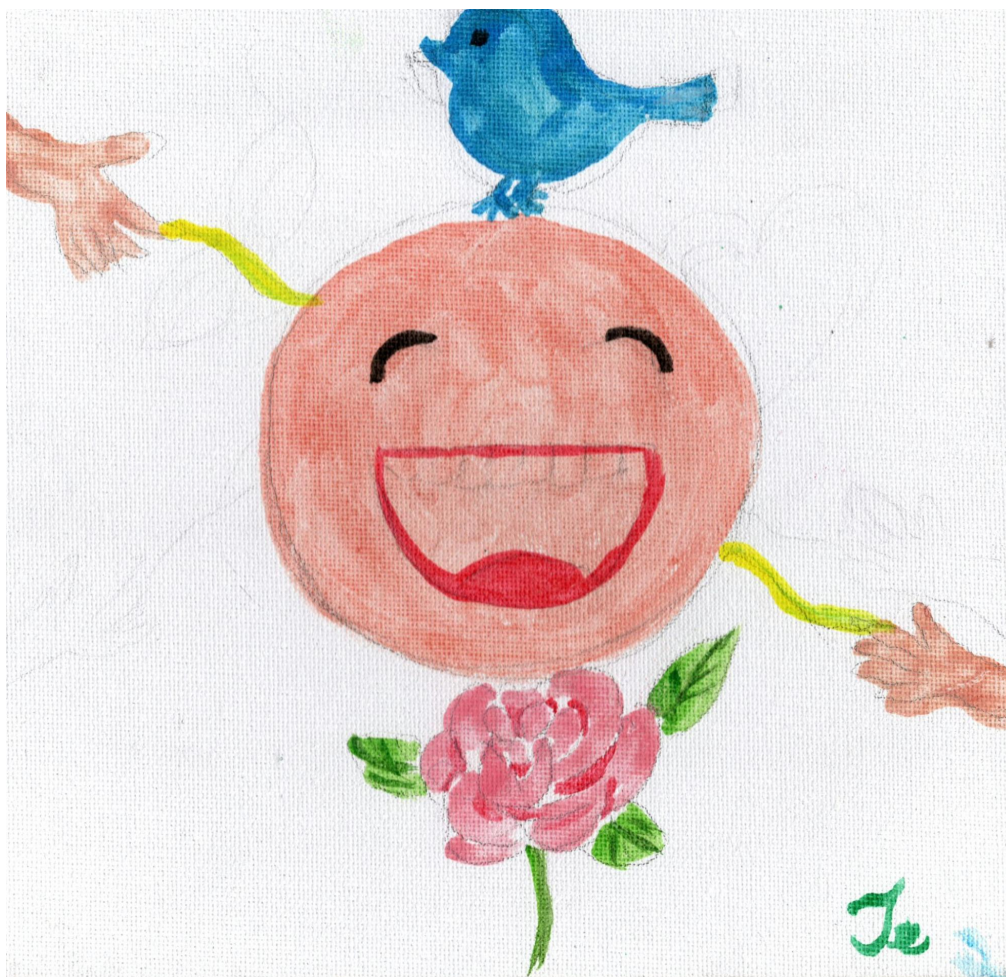
뒤돌아보았다. 삶이란, 결국 실패다. 잘도 꼬이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어떤 실은 쉽게 끊어진다. 너무 쉽게 끊어져서 당황스럽기도 했다.

어떤 실은 질겨서, 끊으려다 포기하고 그냥 달고 살았다. 그렇게 엉킨 실들을 질질 끌며 살아왔다. 그 실들이 나를 이끌었는지, 내가 그것들을 끌었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

어둡다고 여겼던 실들이, 지금 보니 기묘한 빛을 품고 있다. 그 빛은 대단히 반짝이지도, 눈부시지도 않지만,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한다. 정리된다고 삶이 정돈되지는 않겠지만, 덜 넘어질 수는 있다.

앞으로도 실은 생길 것이다. 그건 막을 수 없다. 인생이 그런 것이니까.



이정은 <실2>

실2

예전에 우리 1학년 교실에 귀여운 5살 정도 아기 학생이 있었다. 발달이 느린 학생이라서 기분이 좋으면 아기처럼 놀지만 무언가 마음에 안들면 떼 쓰며 울고, 막 돌아다니고, 소리를 쳤다. (요즘은 이런 친구들은 도우미 선생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시지만 그때는 보조 교사없이 무조건 통합교육을 실시 할 때였다). 그래도 우리반 친구들은 귀찮아하지 않고 잘 달래고 아기처럼 보살펴 주었다.

수업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교탁 밑 내 발 아래서 놀거나 엎어달라고 하고 친구들 책상 밑을 기어다녀도 우리반 친구들은 귀엽다고 누구도 찡그리지 않았다. 어느날 모두 조용히 수업하는데 아기 학생이 복도로 나가길래 화장실을 가는 줄은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앞문이 활짝 열리더니 팬티도 바지도 다 내리고 나에게 올려 달라는 듯 쳐다보며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난 놀라서

“앗 오면 안돼~”

하고 소리치니 더 웃으며 한발씩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난 얼른 아이들에게 두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어머 애들아, 보면 안돼요!”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애들아, 우리가 뒤돌아 앉으면 돼.”

“그래 우리가 뒤로 돌아”

“그래” “그래” “그래”

순간 아이들은 모두 의자에서 몸을 돌려 뒤로 돌아 앉아 순식간에 까만 머리만 보이는 것이었다.

“아……..!”

옛날 사진관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면 팡 소리와 함께 환하게 빛이 터지며 놀란 눈으로 사진이 박히던 시절처럼 그 순간이 팡하고 번쩍이며 내머리 속에 박혔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고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난 웃으며 아기 학생의 웃을 천천히 올려 줄 수 있었고 아기 학생도 웃었다.

“애들아, 우리 다시 공부하자”

“네”

다시 돌아 앉은 아이들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공책에 한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천사같은 아이들과 함께 한 그 한해가 참 행복했었다. 난 가끔 어른답지 않은 일들을 듣거나 볼때면 그 장면이 떠오른다. 내 기억 속 그 까만 작은 머리들은 언제나 선명하고 찬란하다. 그날 아이들은 참 좋은 어른들이었다.



이정은 <실3>

실3

넌 어느 별에서 이 먼 지구별까지 날아왔니? 어떻게 이 커다란 큰 초록별 한 모퉁이 속 희미한 먼지 한점인 우리에게 푹 떨어진거니? 너가 처음 우리를 보고 “아하항~” 고양이 울음 소리를 내며 얼굴을 찌푸리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경이로운지! 온 맘으로 환영해! 예쁜 아가야! 이제 네 손과 내 손이 맞닿으면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질긴 실로 이어진거야. 놀랍지? 마치 나비의 번데기 시절처럼 고치 속에 누운 듯 퐁퐁 싸매져 꿈꾸는 네가 사랑스럽다.

나도 처음 이 지구별 속 어느 한 점에 떨어졌을 때 동그랗게 둘러싼 사람들이 놀라며 말했어.

“참 예쁜 아가다!”

그렇게 떨어진 나는 이 지구별에서 64년을 살았는데 어느날 내 곁으로 날아온 널 만나게 된거야. 기적처럼!! 무슨 생각하니? 별별 냄새랑 이상한 소리들이 마구 돌아다니는 이 지구 별이 아직 정신없고 소란스럽지? 코를 흠흠거리고 귀를 바짝 세우며 너도 부지런히 탐색을 끝내면 이 별이 익숙해질거야. 처음엔 하양과 까망의 세계만 보이지만 이 지구는 여러가지 색색의 찬란한 세상이 있단다. 이제 붉은 꽃잎과 노랑 나비와 푸른 빛의 바다를 너도 보게 될거야.

내가 이 별에 살아보니까 지내기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 처음엔 마냥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울 일도 많아. 네게도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날거야. 점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슬퍼서 울 때가 생겨. 그때 내 손을 꼭 잡아.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거야! 곁에서 같은 실을 붙잡고 함께 간다는게 얼마나 다행인지 서로 알게 되지. 그걸 붙잡는 동안은 걱정 안해도 돼. 난 너의 웃음 소리만 있으면 행복할거야.

아가야, 어서 많이 먹고 많이 자렴! 이제 곧 넌 힘차게 두발로 이 초록별을 뛰어다닐테니! 예서와 이 별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며!

차례

[실1](#)

[실2](#)

[실3](#)